

연변 방언 연구*

- 조사와 종결어미를 중심으로 -

김선희**

|| 차례 ||

1. 서론
2. 조사
3. 종결어미
4.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연변 방언의 특성을 조사와 종결어미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다룬 논문이다. 한중수교이후 연변 지역어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세분화되고 있다. 방언은 표준어와는 달리 지역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조사를 격조사와 보조사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한국과 달리 주격조사는 주로 '-이'로 실현되거나 주격조사가 생략되는 것이 연변 방언의 두드러진 현상이다. 또한 주격조사와 연관성을 보이는 '-이가'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조사 '-께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공동격조사 '-(이)랑', '-(이)라메'가 쓰이고 있으며 목적격조사는 주로 '-으/느'가 쓰이고 생략가능하다. 또한 강조를 나타내는 '-(이)란게/랑게, -라는게, -ㄴ게' 등 보조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사', '-아부라', '-배께' '-마따나' 등 보조사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이 논문은 흑룡강성 교육청 해외학인 프로젝트(黑龍江省教育廳 海外學人項目)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치치하얼대학교 한국어학과 부교수

종결어미에 의한 방언을 서술형, 의문형, 청유형, 명령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변 지역어의 종결어미는 세 등분 체계로 이루어지는데 응응체, 양양체, 예예체 등 형태로 나타난다. 한국어의 일반적인 방언과 특수한 차이를 보이는 양양체는 한국의 하계체와 하오체를 넘나드는 쓰임의 폭이 광범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연변에서는 ‘해요’체가 쓰이지 않고 있다. 연변에 정착한 경상도나 평안도 출신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현재 거주민의 대부분이 함경북도 이주민의 2,3대이므로, 방언학적 측면에서 보면 연변의 방언은 크게 ‘육진방언’과 ‘함북방언’을 기층으로 하여 이루어진 두 개의 방언으로 하위분류할 수 있다.

주제어 : 연변, 방언, 조사, 어미

1. 서론

한 언어를 형성하고 있는 하위단위로서의 언어체계 전반을 방언이라 한다. 방언은 표준어와는 달리, 어떤 지역의 특유한 단어나 언어 적용법이다. 한 언어의 방언들은 대체로 애초에는 한 가지 모습만을 가졌던 언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변화를 일으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한 모체(母體)부터의 분화체(分化體)인 것이다. 한 언어의 방언이란 개별 언어로 분류될 정도의 큰 분화를 일으키지 않은, 적어도 한 언어로서의 공통점을 유지하는 한도 안에서의 분화만을 거친 분화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분화의 크기도 일정하지 않은데 그것은 한 언어 내에서 발생한 언어분화라 할지라도 여러 층위에서 갖가지 다른 이유로, 다른 크기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주민으로 구성된 중국 조선족은 지리적으로 고국과 떨어진 채 조선어¹⁾를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한국이나 북한과 비교해 보면 다른 방언의 체계를 이

를 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어도 지역²⁾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조선족들이 집거해 생활하는 연변 지역어의 방언을 중심으로 연구 하도록 한다³⁾.

연변 조선족자치주는 길림성 동북에 위치해 있고, 중국, 러시아, 조선 3국 접경지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해에 인접해 있다. 또한 중국과 북한, 한국, 일본 등 나라와 교류에서도 제일 가까운 지역이다. 이러한 지리적 원인으로 인하여 연변 지역어는 중국어, 러시아어, 북한어, 한국어, 일본어 까지 섞여 언어의 혼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연변지역 방언은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변 방언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정향란(2010), 김현기(2009), 임차균(1995), 김춘자(2002), 이영옥(2001) 등은 연변 방언의 음운 현상을 다루었고, 박경래(2003)는 연변 정음촌 방언의 상대경어법을 다루었다. 오선화(2007)는 호격조사를, 천홍희(2010)는 어휘를, 최화(2013)는 주격조사를 다루었으며, 엄춘영(2005, 2010), 전학석(1998)은 연변 지역의

1) 중국에서는 중국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조선어라고 부르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한국어라고도 부른다.

2) 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은 약 200만 정도인데, 주로 동북3성인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에 살고 있으며 조선족 인구의 97%를 차지한다. 그 중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약 82만 명 정도로 조선족 인구의 43%를 차지한다.

3) 연변 지역의 방언형은 제보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연변 지역 방언형의 제보자를 권금자, 강영숙, 강창길, 박영옥 등 네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① 권금자(1942년생), 북한 청진출생으로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연변에서 생활한 조선족 2세이며 우체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이다. ② 강영숙(1934년생), 강원도 출생으로서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연변에 이주한 조선족 2세이며 연변에서 고등 교육을 받았고 교직원 생활한 경력이 있다. ③ 강창길(1961년생), 연변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연변에서 생활한 조선족 3세로서 대학 졸업 후, 지금 연변에서 증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④ 박영옥(1981년생), 연변에서 태어나 연변에서 생활하고 대학 졸업 후, 고등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는 조선족 4세이다.

방언을 다루었다. 또한 최명옥(2000), 방채암(2009) 등은 연변 지역의 종결 어미를 다루었다.

본 논문에서는 연변 지역 방언을 조사와 종결어미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체계를 지니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연구 하도록 한다.

2. 조사

연변 지역어에서는 주격조사를 탈락하거나 첨가하여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연변 지역에서 주격조사는 주로 ‘-이’로 실현되거나 주격조사가 생략된다⁴⁾. 또한 주격조사와 연관성을 보이는 ‘-이가’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조사 ‘-께서’⁵⁾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공동격조사 ‘-(이)랑’, ‘-(이)라메’가 쓰이고 있으며 목적격조사는 주로 ‘-으/르’가 쓰이고 생략가능하다. 또한 강조를 나타내는 ‘-(이)란게/랑게, -라는게, -ㄴ게’ 등 보조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사’, ‘-아부라’, ‘-배끼’, ‘-따나’ 등 보조사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4) 주격조사의 생략은 연변 지역 방언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오늘날 학교문법에서서도 “(격)조사 생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5) 주격조사 ‘-께서’는 문체(글말체)에서는 존재하나 구어체(입말체)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2.1 격조사

1) 주격조사

(1) ‘-가’

연변 지역에서 주격조사 ‘-이’의 실현은 음운론적 실현 양상을 제외하고는 현대 한국어와 비슷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의 개음절에서 실현되는 ‘-가’는 연변 지역에서 생략되지만⁶⁾ 대화에 문제없이 진행된다. 아래의 예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 가. 저기 영화 온다. (저기 영화가 온다.)

나. 모재⁷⁾ 세 개나 있는데 또 샀다. (모자가 세 개나 있는데 또 샀다.)

다. 새로 나온 영화 재미있대.(새로 나온 영화가 재미있대.)

라. 이 일 니 해(이 일은 네가 해라).

(1)의 예문들은 명사구의 마지막 음절이 절로 끝나는 예인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주격조사 ‘-가’가 실현되지만, 연변 지역어에는 거의 생략되어 나타난다.⁸⁾

또한 연변 지역에서는 주격조사 ‘-가’가 실현되어야 할 자리에 ‘-이가’가 쓰이기도 한다.

6) 주격조사의 생략은 어느 지역에서도 구어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연변 지역의 두드러진 방언 현상이다.

7) 황대화(1999)에 의하면 단어의 끝소리마디의 모음 /a/가 /ɛ/로 바뀌어 지는 것은 조선반도 전역에 걸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가매(가마), 치매(치마), 이매(이마), 모재(모자) 등으로 음운현상에 의한 고유명사 방언형태이다.

8)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방언형태이다.

(2) ‘-이가’

연변 지역에는 주어 명사구에 ‘-이가⁹⁾’의 형태가 실현되는 현상이 존재¹⁰⁾하는데 예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2) 가. 꽃이가 마이 피었다. (꽃이 많이 피었다.)

나. 옷이가 너무 많아서 어느 거 사알 지 모르겠다.(옷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것을 사야 할 지 모르겠다.)

다. 뱀이가 너무 징그럽다.(뱀이 너무 징그럽다.)

마. 돈이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돈이 너무 많아서 탈이다.)

바. 남자랑게 말이가 너무 많아(남자가 말이 너무 많아.)

위의 예문은 명사에 격조사 ‘-이’와 ‘-가’가 결합된 ‘-이가’의 형태가 실현되어 있다. 연변 지역어에는 명사에 보편적으로 ‘-이’가 결합되는데, 예문의 ‘꽃’, ‘옷’, ‘뱀’, ‘돈’, ‘말’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 ‘꽃이[꼬치]’, ‘옷이[오시]’, ‘뱀이[배미]’, ‘돈이[도니]’, ‘말이[마리]’로 사용된다.

‘-이가’는 시골의 노년층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언형이다. 『조선언어 지리학시고』(1988:64)에서는 동일한 문법적 의미를 가진 ‘-이’와 ‘-가’ 통합되어 실현될 때 ‘-이’는 주격의 의미표현에서 주동적인 담당자가 되고, ‘-가’는 ‘-이’가 첨가된 단어의 의미와 기능을 그것이 단독으로 쓰일 때보다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요즘 연변방언에서 ‘-이가’

9) 주어 명사구에 실현되는 ‘-이가’의 형태는 최명옥(1980), 천시권(1982), 이상규(1990), 김태엽(2001)에 의하여 경상도 방언에서 사용됨이 밝혀졌고, 이익섭(1981)에 의하여 강원도 삼척지역에서 사용됨이 밝혀졌고, 홍운표(1978), 김영황(1990)에 의하여 전라도, 함경도 방언에 널리 사용됨이 밝혀졌다.

10) 홍운표(1980, 1994)에서는 주격조사로 보이는 ‘-이가’의 형태가 근대 한국어 단계부터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그 근거는 『윤음언해』, 『첩해신어』, 『호남윤』, 『인선황후어간』, 『숙중어간』에서 주격조사 ‘-이가’의 사용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이 시기는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한인이 중국 대륙으로 이주하는 규모가 대폭 늘어난 시기이다.

는 하나의 조사처럼 습관적으로 쓰이고 있다.

(3) ‘-께서’

문장에 쓰이는 모든 명사는 화자에 의해 일단 그것이 존귀한 대상인가 아닌가를 양분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존칭대상의 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타나면 그 서술어에 ‘-시-’를 취하여야 한다. 주체가 말할이나 들을이를 기준으로 뒷사람이거나 뒷사람과 관련된 것이면, 주체가 말하는 자리에 있고 없고를 떠나, 동사에 ‘-시-’가 결합되는 것이 원칙적이다. 또한 ‘-시-’로써 존대될 인물이면 자동적으로 주격조사 ‘-께서’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가’를 취하는 것은 그 원칙에 벗어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연변 지역에서는 ‘-시-’와 ‘-께서’의 사용이 한국어의 일반적인 방언과 다른 형태를 보인다. 아래의 예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 (3) 가1. 할아버지, 편찮으십니까?
 가2. 할아버지, 편찮습니까?
 나1. 할아버지, 어느 쪽 이가 아프십니까?
 나2. 할아버지, 어느 쪽 이 아픴까?

위 예문 (3가1), (3나1)은 표준어로 문체나 매체에서는 이 형태를 사용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3가2), (3나2)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4) 가. 선생¹¹⁾ 왜 내만 미워하니?(선생님께서 왜 나만 미워하니?)
 나. 니네 아버지 언제 오니?(너의 아버지께서 언제 오시니?)

11) 선생(선생), 위새(위생), 새일(생일) 등은 연변 지역에서 자음탈락에 의해 이루어진 고유명사 방언형이다.

위 예문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선생님’은 [+존대]의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이다.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는 이들 명사가 주어로 나타날 때 [+존대]를 나타낼 수 있는 주격조사 ‘-께서’가 실현된다. 하지만 연변 지역어에서는 ‘-께서’가 실현되지 않을뿐더러 격조사 형태가 실현되지 않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연변 지역에는 주격조사로서의 ‘-가’가 생략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놓여야 할 ‘-께서’나 주체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에도 ‘-시-’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로써 연변 지역어에서는 한국의 주체 존대법 형태보다 사용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구어체에서는 문체보다 사용이 훨씬 자유롭고 ‘-시-’나 ‘-께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2) 목적격조사

행위의 대상이나 목표를 나타내는 목적격 조사로는 ‘-을/를’이 있는데 연변 지역에서는 ‘-으/르’¹²⁾로 실현되고 있다.

(5) 가. 밥(으) 먹구 영화 보러 가자.(밥을 먹고 영화 보러 가자.)

나. 고기르 많이 사다가 뽕쌈¹³⁾에 넣었다. (고기를 많이 사다가 냉장고에 넣었다.)

다. 돈으 마이 벌어 부자 될 거야(돈을 많이 벌어 부자 될 거야.)

라. 감기약(으) 먹고 폭 자므 감기 나올 거다.(감기 약을 먹고 폭 자고나

12) 연변 지역에서 실현되는 목적격조사 ‘-으/르’를 받침 ‘ㄹ’이 탈락한 형태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언어 지리학시고>(1988: 67)의 견해에 따라 역사적으로 목적격 조사의 기본형은 ‘ㄹ’이며 옷말의 어근이 개음절인가 폐음절인가에 따라 어근과 목적격조사 ‘-ㄹ’이 결합할 때 조음관계로 ‘으’나 ‘르’가 끼여 ‘을’, ‘를’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3) 뽕쌈(bing xiang)은 냉장고의 중국어 발음인데 연변 지역에서는 고유어를 중국어차용방식에 따라 중국 음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면 감기 나올 거야.)

마. 그때는 얘기르 업구 밥으 했지.(그때는 얘기를 업고 밥을 했지.)

‘-으/르’는 동북방언과 강원도 영동 일부 방언(강릉, 삼척) 등에 나타나고 있다.

목적격조사는 강조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 생략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생략해서 사용하고 있다.

3) 공동격조사

연변지역에는 공동격조사 ‘-(이)랑’, ‘-(이)라메’가 존재한다.

(6) 가. 어제 시장에서 사과라메 딸기라메 샀다.(어제 시장에서 사과랑 딸기랑 샀다.)

나. 누구랑 영화를 봤니? 내라메 복순이라메 같이 영화를 봤어. (누구랑 영화를 봤니? / 나랑 복순이랑 같이 영화를 봤어.)

‘-(이)랑’은 일반적으로 열거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위 예문에서는 ‘-(이)랑’, ‘-(이)라메’가 열거를 나타내는 기능으로 둘 이상의 대상을 포함하는 조사로 작용한다. 그러나 연변지역어에서는 아래의 예문처럼 하나의 대상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된다.

(7) 가. 우리 아버지랑 어렸을 때 몇 십리 길을 걸어 학교 다녔대.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렸을 때 몇 십리 길을 걸어 학교 다니셨대.)

나. 그 때는 책가방이랑 없었지. (그 때는 책가방이 없었지.)

(8) 가. 내라메 얼마나 말렸대구. (내가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

나. 삼촌이라메 다 안다.(삼촌이 다 아서)

위 예문의 ‘-(이)랑’, ‘-(이)라메’는 주격조사의 자리에 나타난 경우이다. 위 예문에서 비록 하나의 행위 주체로 사용되었지만 다른 대상까지 염두에 두고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랑’, ‘-(이)라메’는 주어의 위치에서 실현되고 단독 행위 주체로 나타나지만 행위주체가 소속된 집합체를 염두에 두고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랑’, ‘-(이)라메’는 공동격 조사이고 그 의미자질은 [+복수], [+포함]이다.

2.2. 보조사

보조사란 체언 뒤에 붙어서 그 성분의 뜻을 여러 가지로 돕는 구실을 하는 조사를 말한다. 학자에 따라서 특수조사, 보조조사, 후치사 등 여러 가지로 지칭하며 다루고 있는 형태들의 범위도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연변 지역어에는 주어 명사구에 ‘-(이)란게/랑게, -라는게, -ㄴ게’, ‘-(이)사’, ‘-아부라’, ‘-배끼’, ‘-마따나’와 같은 형태가 실현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이들 형태들은 연변 지역에서 보조사로서도 사용되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1) -(이)란게/랑게, -(이)라는게, -ㄴ게

(9) 가. 오빠랑게 그것도 몰라? (오빠가 그것도 몰라?)

나. 부부란게 뭐임두? (부부가 무엇일까요?)

다. 대학생이라는게 아직도 떼를 쓰니? (대학생이 아직도 응석을 부리니?)

라. 언넌게 참아야지. (언니가 참아야지.)

위 예문에서의 ‘-(이)란게/랑게, -(이)라는게, -ㄴ게’는 한국어의 ‘-(이)라는 것이/-(이)라고 하는 것이’에 해당하며, [+속성], [+자격], [+개념], [+

강조의 의미자질을 가진 보조사로 본다.

2) -(이)사

- (10) 가. 남의 일에 제사 더 난리야. (남의 일에 자기가 더 흥분하네.)
 나. 영희가 공부사 잘하지. (영희가 공부는 잘하지.)
 다. 그 분이사 남자 중의 남자지. (그 분이야 남자 중의 남자지.)
 라. 내사 모르지. (나야 모르지.)

차광일(1981)에서는 ‘-(이)야’의 세 가지 기능을 제시하면서 주어 명사구에 실현된 ‘-(이)야’의 기능은 [+대조·구별], [+조건적 강조]라고 하였다. 리영순·김기종(2006)에서도 [+강조]와 [+선택되는 조건]의 의미기능을 언급하였다. 백낙천(2006)에서는 조사 ‘-야’가 선택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야’는 선택에서 제외된 내용이 배제된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선택된 내용이 필수적이고 당연할 경우에는 화자의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로써 ‘-(이)사’는 [+비교·구별], [+강조]의 의미자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 -아부라¹⁴⁾

- (11) 가. 니아부라 내 말 못 믿니?(너마저 나 못 믿어?)
 나. 삼추이아부라 내보고 용돈 달란다(삼춘마저 나한테 용돈 달라해)
 다. 주말아부라 못 놀게 한다(주말조차 못 쉬게 한다.)

14) ‘아부라’는 함북 방언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현재 거주민의 대부분이 함경북도 이주민의 2,3대이므로, 이 방언형태가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예문에서의 ‘-아부라’는 한국어의 ‘-마저/-조차’에 해당하는 조사로 쓰인다.

4) -배끼

(12) 가. 니배끼 없다(너밖에 없어.)

나. 백원배끼 없으므 못 사지(백원밖에 없으면 못 사지.)

위 예문의 ‘-배끼’는 한국어의 ‘-밖에’에 해당하는 조사로 쓰인다. 명사 ‘밖’이 처소격조사 ‘-에’와 결합하여 ‘밖에’로 쓰이면서 문법화와 상승모음화를 겪어 [바끼]로, 다시 음라우트를 거쳐 [배끼]로 나타난다.

5) ‘따나¹⁵⁾

(13) 가. 니 말따나 비가 올 거 같다. (너의 말처럼 비가 올 것 같다.)

나. 영희 말따나 둘이 사귀는거 아냐? (영희말처럼 둘이 사귀는 거 아냐?)

위 예문에서의 ‘-따나’는 한국어의 ‘-처럼’에 해당하는 보조사로서 ‘비교’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연변 지역어에서 ‘-(이)랑게/랑게, -리는게, -ㄴ게’, ‘-(이)사’, ‘-아부라’, ‘-배끼’ ‘-따나’와 같은 보조사가 사용됨을 밝혔다.

15) ‘따나’는 한국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준어로 되어 있지만 연변 지역에서는 방언형에 속한다.

Ⅲ. 종결어미

종결어미는 용언의 어간이나 선행어미 뒤에 결합되어 그 문장을 의미적으로 완결하는 문법형태로, 화자의 청자에 대한 태도에 따라 서술형, 의문형, 청유형, 명령형, 감탄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연변 지역의 종결어미에 의한 방언이 대우등급에 따라 어떻게 실현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감탄형 종결어미는 방언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1. 서술형

서술형의 종결어미는 화자가 청자와 상황에 따라 형태적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해라체, 하계체, 하오체, 합쇼체의 네 등급으로 나눈다. 다시 말하면 상대대우법 형태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지는데 이 논문에서는 연변 지역의 상대대우법 형태를 세 등급¹⁶⁾으로 나누는 관점을 따른다. 이러한 원인으로 종결어미를 응응체, 양양체, 예예체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응응체의 경우는 한국의 해라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에 이 논문에서는 주로 양양체와 예예체의 방언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1) 양양체

이 형태는 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연변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등급으로 보통 ‘-오/소’로 문장을 종결짓는 형태이다. 한국어의 하계체와 하오체

16) 박경래(2005)는 연변 정암촌의 상대대우법을 응응체, 양양체, 예예체 등 세 등급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최명옥(2005)에서는 양양체를 하오체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를 넘나드는 쓰임의 폭이 광범위한 것이 특징인데 학자에 따라 조금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 (1) 가. 난 그 애를 본 적이 없소.
 나. 난 순이를 좋아하오.
 다. 아까 식당에서 밥을 먹습네.
 라. 난 밥을 먹었습네.

위 예문에서 ‘-소’는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오’는 ‘-이다’, ‘-아이다’의 어감 및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붙어서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낸다.

한국에서는 하오체 ‘-오/소’를 나이가 비슷한 동료들 사이에서 격식을 차리지거나 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초면에 대우해 줄 때 사용하고¹⁷⁾ 좀 더 친해지면 하오체 또는 하계체로 대우하다가 좀 더 친해지면 해체나 해라체 정도로 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연변 지역에서는 친한 동료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윗사람이 사위나 며느리¹⁸⁾ 등의 아랫사람에게도 ‘-오/소’를 사용한다. 즉 연변 지역에서 ‘-오/소’는 한국어의 하계체와 하오체를 넘나드는 그 쓰임의 폭이 매우 광범위하다.

‘-넬테/습네¹⁹⁾’는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면서 서술형과 의문형에 두로

17) 이정복(2004: 225-226) 참조. 한국의 일상어에서는 격식체인 하오체가 실제로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 통신 언어에서는 하오체의 쓰임이 실생활보다 훨씬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한국에서는 사위에게는 ‘하계체’를, 며느리에게는 ‘해라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변 지역에서는 사위나 며느리와 같은 혈연관계가 없는 친족에게는 ‘해라체’를 사용하지 않고 ‘양양체’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19) 방채암(2008: 25)에 의하면 이기갑(1997: 201)에서는 서북 방언 편에서 ‘-습네다>’-습네다>’-습메다’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황대화(1998: 228-229)에서는 ‘-르네/습네’가 ‘-르네다/습네다’에서 단순히 ‘다’가 탈락한 형태가 아니며, ‘-르네/습네’의 ‘네’와 ‘르네다/습네다’의 ‘네’는 그 기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쓰이고,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오’ 또는 ‘-어요’ 정도의 뜻으로 쓰인다.

‘-디데/-습데’는 일반적으로 ‘과거회상’을 나타내고 ‘-더군요’ 정도의 뜻을 가진다. 이 경우는 화자가 청자에게 제3자의 행위에 대해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본 바를 전해주고자 할 때 쓰인다.

(2) 예예체

이 형태는 손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하거나 윗사람의 말에 대답할 때 쓰이는데 한국어의 ‘아주높임’ 형태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ㄹ다/습다’, ‘-(으/스)꾸마’, ‘-디데다/습데다’, ‘-디더구마/습더구마’, ‘-디지/습지’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아래의 예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 (2) 가. 밖에 비가 옵다/ 나두 왔습다. (비가 옵니다/ 나도 왔습니다.)
 나. 잘 먹었스꾸마. (잘 먹었습니다.)
 다. 순이는 방에서 공부합데다. (순이는 방에서 공부합니다.)
 라. 철이 새기가 곱습더구마.(철이 색시가 곱습디다.)
 마. 돈 잘 벌지.(돈을 잘 벌지요.)

위 예문에서 ‘-ㄹ다/습다’, ‘-(으/스)꾸마’는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디데다/습데다’, ‘-디더구마/습더구마’는 ‘과거회상’을 나타내며 ‘-디지/습지’는 ‘일반적인 사실’을 친근감 있게 전달하려는 뜻으로 사용된다.

‘-ㄹ다/습다’는 함북 지역어에 속하는 방언으로 ‘-디니다/습니다’>‘-르니다/습니다’>‘-ㄹ다/습다’의 어음론적 변화 과정을 겪었다(황대화 1998: 202). ‘-디니다/습니다’에 비하여 친근한 느낌을 주는 ‘-ㄹ다/습다’는 젊은 아이들이 즐겨 쓰는 표현으로, 이것은 젊은이들이 어휘나 종결어미 등을 짧게 줄여서 사용하는 이른바 ‘어음축소화 경향’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

다. 최근 들어 장년층뿐만 아니라 노년층 사이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읍꾸마/습꾸마’는 합쇼체 어미로²⁰⁾ ‘-습니다’ 정도에 해당하는 말이고 받침 ‘ㅂ’이 탈락해서 ‘-으꾸마/스꾸마’가 되었으며, ‘-읍꾸마/습꾸마’에서 받침 ‘ㅂ’이 탈락한 ‘-으꾸마/스꾸마’가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이다(최명옥 등 2002: 155).

황대화(1996: 114-115, 1998: 210)에 의하면 ‘-꾸마’는 ‘-읍+꾸마’>‘-오꾸마/ㅂ꾸마’>‘-꾸마’의 어음 변화를 보이는데, 이 때 역사적으로 쓰이어 오던 겸양 존경토 ‘옵’은 중부 방언을 비롯한 여러 방언들(육진 방언 포함)에서 높임의 ‘ㅂ’으로 되었다가, 이러한 ‘ㅂ’마저 탈락하여 ‘-꾸마’가 된 것이다.

‘-꾸마’는 받침이 없는 음절로 끝나는 어근 뒤에서는 ‘-으’가 붙어서 ‘-으꾸마’가 되고, 받침이 있는 음절로 끝나는 어근 뒤에서는 ‘-스’가 붙어서 ‘-스꾸마²¹⁾’로 쓰인다.

‘-ㅂ데다/습데다’는 ‘-ㅂ데/습데’와 마찬가지로 ‘과거회상’을 의미하고 ‘-ㅂ디다/습디다’로 해석된다. 황대화(1998: 204)에 의하면 ‘-ㅂ데다/습데다’는 동북 방언과 서북 방언에서 주로 쓰이며 화자가 ‘제3자의 행위’를 묻는 경우에 이 말을 들은 청자가 화자에게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본 바를 전해주고자 할 때 쓰인다.

‘-ㅂ더꾸마/습더꾸마’는 육진 방언으로 ‘-데다/습데다’와 같이 ‘과거회상’을 나타내고 화자가 청자에게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본 바를 전해주고자 할 때 쓰인다.

20) 박경래(2003: 48,55)에서 의하면 ‘-수꾸마’는 합쇼체뿐만 아니라 해라체에서도 나타난다.

가. 밥 먹었나? → 예, 밥 먹었으꾸마. (예, 밥 먹었습니다.)

나. 밥 먹었소? → 야~, 아이 먹었소(야~, 밥 안 먹었소.)

다. 밥 었었음두? → 응, 아이 먹었으꾸마(응, 안 먹었다.)

21) ‘-으/스꾸마’는 한국의 표준국어대사전에 경상도 방언으로 등재되어 있다.

함경방언 ‘-히지/습지’는 ‘-히지비/습지비’에서 ‘-비’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히지비/습지비’ > ‘-지비’ > ‘-지’인 것이다. 중국 조선어실태조사보고(1985: 143)가 표준어 ‘-지요’에 해당하는 높임의 말투로 ‘-히지비’를 쓴다고 기술하면서 ‘-히지/습지’의 높임 등급을 함쇼체로 분류하였고, 황대화(1986: 127-128, 1998: 229-230)에서는 이것을 같음(하오체)으로 분류하면서 ‘-히’의 작용으로 높임의 말 차림으로 쓰인다고 하였다. ‘-히지/습지’는 한국어 해요체인 ‘-어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하계체 ‘-지’와 마찬가지로 연변 지역에서 자루 쓰이는 편은 아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변 지역어의 예예체 종결어미들은 다른 등급 체계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전학석(1998: 153)은 집단이주 또는 자유이주에 의하여 연변지역에 정착한 경상도나 평안도 등의 출신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연변지역은 현재 거주민의 대부분이 함경북도 이주민의 2,3대이므로, 연변 방언은 방언학적 측면에서 볼 때 크게 ‘육진방언’과 ‘함북방언’을 기층으로 하여 이루어진 두 개의 방언으로 각각 하위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의문형

의문형 종결어미는 서술형 종결어미와 마찬가지로 양양체와 예예체에 방언형이 많이 나타나지만 응용체(해라체)에서도 방언형이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1) 응응체²²⁾

응응체 의문형 종결어미로는 ‘-(이)야, -재, -개’ 등이 있는데 아래의 예문을 통하여 알아보자.

(3) 가. 저 사람이 니 오빠야?(저 사람이 너의 오빠니?)

나. 빨간 게 더 이쁘재(야)?(빨간 것이 더 이쁘지 않니?)

다. 저기 가는 애가 순이재?(저기 가는 애가 순이지 않니?)

라. 내일 동창회 너도 가개?(내일 동창회에 너도 가겠니?)

마. 주말에 시장구경 하개?(주말에 시장구경 하겠니?)

(3가), (3나)의 ‘-(이)야’는 젊은 사람들끼리, 혹은 어린 아이들끼리거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쓸 수 있는 의문형 종결어미이다. (3다)의 ‘-재’는 의문형으로 쓰이지만 (3가), (3나)의 ‘-(이)야’와 다른 점이라면 자신이 알고 있거나 그렇다고 생각하는 바를 확인하려는 의미를 가진다.

연변 지역에서 사용되는 또 하나의 의문형 종결어미는 ‘-개’와 ‘-재’가 있다. 이는 젊은 사람들이 즐겨 쓰는 의문형으로 ‘-개’는 ‘-겠니’, ‘-재’는 ‘-잖니/지 않니’에 해당한다.

(2) 양양체

양양체 의문형 종결어미로는 ‘-오/소’, ‘-비데/습데’가 있는데 ‘-오/소’는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물음의 뜻으로 쓰이고, ‘-비데/습데’는 일반적으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떤 사실을 확인하거나 화자가 청자에게 제3자의 행위를 묻고자 할 때 쓰인다.

22) 한국어의 해라체에 해당하는 응응체는 다른 유형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의문형서는 다른 형태를 보이기에 이 논문에서는 의문형의 응응체를 다루기로 한다.

- (4) 가. 오늘 무슨 요일이오? (오늘 무슨 요일인가요?)
 나. 주말에 시간이 있소? (주말에 시간이 있나요?)
 다. 철수 바지 샅데? (철수가 바지를 샅어요?사던가요?)
 라. 영희 집에 있습데? (영희가 집에 있던가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소’, ‘-디데/습데’는 서술형으로도 쓰이는데 억양에 의해 의문문으로 쓰이기도 한다. 의문형으로 쓰일 때는 소리를 길게 내면서 억양을 살짝 높여주어야 한다.

(3) 예예체

이 부류에 속하는 종결어미는 ‘-로두/습두’, ‘-로다/습다’, ‘-로까/습까’, ‘-(으/스)꾸마’, ‘-디데까/습테까’, ‘-디편두/습던두’ 등이 있다. 이 중 ‘-로두/습두’, ‘-로다/습다’, ‘-로까/습까’, ‘-(으/스)꾸마’ 등은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고, ‘-디데까/습테까’, ‘-디편두/습던두’는 과거 회상 및 제3자의 행위에 대한 물음을 나타낸다.

- (5) 가. 어디 감두? (어디 갑니까?)
 나. 아들이 왔습두? (아들이 왔습니까?)
 다. 뭐람다? (뭐람니까?)
 라. 잘 있었습다? (잘 지냈어요?)
 마. 몇시에 옴까? (몇시에 옵니까?)
 바. 이 김치 맵습까? (이 김치 맵습니까?)
 사. 뭐가 이리 많스꾸마? (뭐가 이렇게 많아요?)
 아. 철이 학교 갑테까? (철이가 학교에 가던가요?)
 자. 시장에 사람이 많습테까? (시장에 사람이 많던가요?)
 차. 영희 공부 잘 함편두? (영희가 공부를 잘 하던가요?)
 카. 순이느 오늘두 집에 있습던두?(순이는 오늘도 집에있던가요?)

‘-ㄱ두/슴두’는 연변 지역에서 쓰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육진 방언의 의문문에서 합쇼체로 쓰이던 것이 서술문에까지 기능이 확대된 것인데 ‘-ㄱ둥/슴둥’으로도 쓰인다. 황대화(1998: 248)에 의하면 ‘-ㄱ두/슴두’는 본래 ‘-ㄱ둥/슴둥’이었으나 오늘날에는 ‘ㅇ’ 받침소리를 내지 않고 ㄱ소리가 섞인 ‘두’로 발음하고 있다.

‘-ㄱ다/슴다’는 함북 지역어에 속하는 종결어미로, 서술형에서 밝혔듯이 ‘-ㄱ니다/슴니다’>‘-ㄱ니다/슴니다’>‘-ㄱ다/슴다’의 어음론적 변화 과정을 겪은 서술형 종결어미로서 의문형에까지 그 쓰임이 확대된 것이다. 서술형 어미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년층들은 잘 쓰지 않고 젊은 층에서 즐겨 사용하는 표현으로, 사용 시 소리를 길게 내면서 억양을 살짝 높여주어야 한다.

이기갑(1997: 203)은 ‘-습니까’의 ‘-니’가 줄어들어 ‘-ㄱ까/슴까’가 되었다고 하였고, 최명옥 등(2002: 160-161)에서는 표준어나 문화어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음니까/습니까’의 준 형태가 ‘-음까/슴까’라고 하였다.

‘-(으/스)꾸마’는 어음론적 변화나 기능에서 서술형 어미와 다를 바 없고, 문장의 끝에서 억양을 살짝 올리면 그대로 의문문이 된 것이다²³⁾.

황대화(1998: 243)에서는 ‘과거회상’을 뜻하는 ‘-ㄱ데까/슴데까’는 동북 방언과 서북 방언 등에서 나타나고, ‘-ㄱ디까/슴디까’로 해석되면서 화자가 청자에게 ‘제3자의 행위’에 대해 묻는 경우에 쓰인다.

육진방언 ‘-ㄱ편두/슴편두’는 ‘-ㄱ데까/슴데까’와 같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제3자의 행위’에 대해 묻는 종결어미이고, ‘-던가요’ 정도로 해석된다.

23) 왕한석(1996, 박경래 2003에서 재인용)에서는 서술형 어미 ‘-(으/스)꾸마’가 문말에서 상승 억양을 하면 의문문을 표시하는 문형이 된다고 하였다.

3. 청유형

청유형 종결어미에서도 앞의 두 유형과 마찬가지로 양양체와 예예체에서 방언형이 나타난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1) 양양체

양양체 종결어미는 ‘-오/소’, ‘-기오/기요’ 등이 있다.

(6) 가. 같이 가오.

나. 많이 먹소 (많이 먹어요.)

다. 내일 영희 보러 가기오. (내일 영희 만나러 가요.)

라. 그럼, 내가 창문 좀 닫기요.

(그럼 내가 창문을 닫겠소. /예, 문 닫읍소/닫으십소.²⁴⁾

‘-오/소’는 동년배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친숙한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쓰이는 청유형 종결어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소’는 사위나 며느리에게도 쓰이는 종결어미 형태이다.

‘-기오/기요’는 ‘-ㅂ소’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화자가 청자를 조금 더 예우해주고자 할 때 쓰인다. 황대화(1986: 142)에 의하면 본래 함남에서 쓰이는 ‘-기오’는 함북이나 육진 방언에서와는 달리 상대방에게 함께 하자고 권유하는 뜻은 없고, 다만 ‘나도 가겠다’는 뜻으로 의향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기능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다른 청유형 어미들과 구분된다. 위 예문(6라)의 ‘-기요’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때의 ‘-기요’는 대화 도중에 갑자기 화제를 바꾸면서 화자 자신의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24) 방채암(2009: 43) 인용.

창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알리고 이에 동의해 주기를 청할 때 쓰는 표현이다. 화자의 이러한 의도는 ‘잠깐 실례 좀 할 게요’ 정도의 의미로서, 약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2) 예예체

예예체 종결어미에는 ‘-ㅂ소/습소’, ‘-기시오’, ‘-깁소’, ‘-깍소’ 등이 있다.

- (7) 가. 자주 놀러 옵소. (자주 놀러 오세요.)
나. 천천히 깍습소. (천천히 드세요.)
다. 내일 같이 영화 보기시오.(내일 같이 영화 봅시다.)
라. 빨리 집에 가깁소.(빨리 집에 갑시다.)
마. 나도 같이 가깍소.(나도 같이 갑시다)

‘-ㅂ소/습소’는 연변 지역에서 동년배들 사이에서 쓰이거나 아랫사람이 친숙한 윗사람에게 쓰이는 청유형 종결어미이다.

방채암(2009: 45)에서는 ‘-깁소’, ‘-깍소’는 둘 다 ‘-ㅂ시다’를 뜻하지만, 1인칭 ‘나’가 주어인 문장에서는 ‘-깍소’를 사용하여 ‘나도 같이 갑시다’의 뜻으로 쓰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황대화(1986: 141)에서는 육진 방언 ‘-깍소’와 ‘-깍서(깍소)’의 기능을 다른 것으로 보지 않고 둘 다 높임의 추김(청유)을 나타낸다고만 하였다. 또한 육진 방언에서 ‘-ㄹ두/습두’를 사용한 청유가 ‘-깍소’와 ‘-깍서(깍소)’의 청유보다 더 많이 쓰인다고 하였다. 즉 “빨리 집에 가지 않겠습두?”에서처럼, 의문형 높임으로 쓰이는 ‘-ㄹ두/습두’를 사용하여 높임의 추김(청유)에 어울려 나타내는 경우가 육진 방언에서는 더욱 많다고 주장하였다. 본고에서는 ‘-기시오/깁소/깍소’는 ‘-ㅂ시다’의 뜻으로 쓰이고, 윗사람에게 ‘같이 갑시다/봅시다’의 뜻으로 쓰임을 주장한다.

4. 명령형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문에서는 앞의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양양체와 예예체에서 방언형이 실현된다.

(1) 양양체

양양체 종결어미에는 ‘-오/소’, ‘-시오’ 등이 있다.

- (8) 가. 영희에게 알려주오. (영희에게 알려주세요.)
 나. 여기 앉소. (여기 앉으세요.)
 다. 조용하시오.

‘-오/소’는 연변 지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양양체 종결어미이다.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동년배 사이 혹은 나이차가 많지 않은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에게 쓰이는 종결어미이다.

‘-시오’는 ‘-오/소’보다는 조금 더 예우해주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줄여서 ‘-쇼’로 발음한다. 황대화(1986: 138)는 ‘-시오’가 함남 지역에서 합쇼체로 쓰인다고 하였고, 중국조선어실태조사보고(1986: 147)에서는 ‘-시오’를 같음(하오체)으로 규정하였으며, 박경래(2003: 53)에서는 합쇼체로 보았는데, 이는 ‘-시오’가 하오체와 합쇼체의 경계에 걸쳐 있음을 말해준다.

(2) 예예체

예예체 종결어미에는 ‘-하소/습소’, ‘-십소’ 등이 있다. ‘-하소/습소’는 ‘-오/소’보다는 좀 더 예우해주는 종결어미로서 청유의 뜻을 지닌 명령문에 쓰이고, ‘-십소’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줄 것을 청자에게 극진하게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 (9) 가. 이 책 좀 봐줍소.(이 책 좀 봐 주세요.)
나. 천천히 놀다 가십소.(천천히 놀다 가세요.)
다. 전화 받으십소.(전화 받으세요.)

‘-디소/습소’는 하오체 ‘-오/소’보다 조금 더 예우해주는 표현으로 ‘-(으)세요’의 뜻을 가진다. ‘-디소/습소’는 나이가 든 동년배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도 자주 쓰는 종결어미이다. 이기갑(1997: 205), 전학석(1998: 173), 최명옥(2000: 46) 등은 ‘-디소’를 존대(합소체)로 분류하였고, 박경래(2003: 173)는 ‘-디소’를 아야체(하오체)로 분류하면서 다만 ‘-디소’는 ‘-소’보다는 조금 더 존대해주는 표현이라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였을 때, ‘-디소’는 하오체의 특성을 일부 포함하는 합소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십소’는 ‘-십시오’로 해석이 되고 동년배들 사이에서 쓰이거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쓸 수 있다. ‘-디소/습소’보다는 조금 더 예우해주는 종결어미지만,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IV. 결론

이 논문에서는 연변 지역의 방언을 주로 조사와 종결어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조사에 의한 방언은 주로 격조사와 보조사를 다루었는데 한국과 달리 주격조사는 주로 ‘-이’로 실현되거나 주격조사가 생략되는 것이 연변 방언의 두드러진 현상이다. 또한 주격조사와 연관성을 보이는 ‘-이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공동격조사 ‘-(이)랑’, ‘-(이)라메’가 쓰이고 있으며 목적격조

사는 주로 ‘-으/르’가 쓰이고 생략가능하다. 또한 속성이나 강조를 나타내는 ‘-(이)란게/랑게, -라는게, -ㄴ게’ 등 보조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이)야’, ‘-마저/조차’, ‘-밖에’, ‘-처럼’에 해당하는 보조사가 ‘-(이)사’, ‘-아부라’, ‘-배끼’, ‘-마따나’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조사 ‘-께서’가 문체에서는 존재하나 구어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존귀한 대상의 서술어에도 ‘-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

종결어미에 의한 방언을 서술형, 의문형, 청유형, 명령형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연변 지역의 종결어미는 세 등분 체계로 이루어지는데 응용체, 양양체, 예예체 등 형태로 나타난다. 한국과 특수한 차이를 보이는 양양체는 한국의 하계체와 하오체를 넘나드는 쓰임의 폭이 광범위한 것이 특징이다. 연변 지역에 정착한 경상도나 평안도 출신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현재 거주민의 대부분이 함경북도 이주민의 2,3대이므로, 방언학적 측면에서 보면 연변 지역어의 방언은 크게 ‘육진방언’과 ‘함북방언’을 기층으로 하여 이루어진 두 개의 방언으로 하위분류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연변 지역의 방언을 조사와 종결어미 등 문법적인 부분만 분석하였는데 음운론적 분석과 어휘적 분석을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하였다. 이는 앞으로 더 연구하여야 할 부분이고 과제이다.

【참고문헌】

- 곽충구, 「연변 지역의 함북 길주·명천 지역 방언에 대한 조사 연구」, 『애산학보』20, 애산학회, 1997, pp.109-143.
- _____, 「동북 방언」, 『새국어생활』8, 국립국어연구원, 1998, pp.75-94.
- 박경래, 「중국 연변 조선족들의 언어 태도」, 『사회언어학』10(2), 한국사회언어학회, 2002, pp.59-85.
- _____, 「중국 연변 정암촌 방언의 상대높임법」, 『이중언어학』23, 이중언어학회, 2002, pp.44-65.
- _____, 「충북출신 중국 연변 조선족 언어집단의 경어법 혼합양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사회언어학』13(1), 한국사회언어학회, 2005, pp.53-81.
- 방채암, 「연변지역어 한국어 종결어미 연구」,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2008, pp.16-48.
- 왕한석, 「중국 길림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언어생활』, 국립민속박물관, 1996, pp.149-189.
- 엄춘영, 「연변지역어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5, pp.45-50.
- _____, 「연변방언의 조사와 어미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10, pp.10-46.
- 이기갑, 「한국어 방언들 사이의 상대높임법 비교 연구」, 『언어학』21, 한국언어학회, 1997, pp.185-217.
- 이익섭, 『국어학개설』, 학연사, 1999, pp.266-314.
- _____, 『방언학』, 민음사, 2000.
- 전학석, 「연변 방언」, 『새국어생활』제8권 제43호, 국립국어연구원, 1998, pp.153-180.
- 천홍희, 「중국 조선족의 조선어 방언 연구」, 선문대 석사학위논문, 2010, pp.12-20.
- 최 화, 「중국 연변 지역어 주격조사의 식별에 관한 연구」, 『배달말』48, 배달말학회, 2013, pp.41-59.
- 황대화, 『동해안 방언 연구』, 길일성종합대학출판사, 평양, 1986.
- _____, 『조선어 동서방언 비교연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한국문화사, 1998.

Abstract

A study on particles and endings of the Yanbian dialect

Jin, Shan-J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researches in the two features of Yanbian dialect: Particles(Josa) and Endings(Eomi).

Since the treaty of Amity of China with South Korea in 1992, the researches of the Yanbian dialect have been continuously going on, while having been subdivided according its local features.

In the category of particles, this study mainly deals with case markers and auxiliary particles. Unlike the standard language in Korea, Yanbian dialect indicates the subjective case by "i", or by dropping the case marker. In addition, "iga" which is related to the subject marker exists, and comitative case markers "~(i)rang" and "~(i)rame" are used to indicate the subjective case. The auxiliary particles such as "~(i)range/rangge/raneunge/(n)ge" exist, and the particles like "~(i)sa", "~abura", "~bekki", "~mattana" are being widely used. It is also worth to mention that the subjective marker "kkeseo" is only used in written forms.

This study classifies endings of Yanbian dialect into four parts: declarative, interrogative, propositive, and imperative endings. And these endings are realized by the three styles: "Eungeung", "Yangyang", and "Yeye". "Yangyang"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which features the wide usage ranging from "Hage(intimate level)" to "Hao(authoritative level)". In Yanbian, "Heyo(polite level)" style is not used any more.

In Yanbian, the population of immigrants from Gyeongsang province or Pyeongan province is very small. Most of local residents are descendants of immigrants from Hamgyeong-north province. For this reason, in a dialectological view, Yanbian dialect can be subdivided into two dialects

which have been developed from Yukjin dialect and Hambuk dialect

Key Word : Yanbian, dialect, particles, endings

김선희

소속 : 치치하얼대학교 한국어학과 부교수

주소 : (161-006) 중국 흑룡강성 치치하얼시 문화대가 35번지

전화번호 : +86-(0)137-0461-3764

전자우편 : pei1030@hanmail.net

이 논문은 2013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3년 8월 1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8월 15일 게재 확정됨.